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권 36호(다해) 2010-8-1

## [묵상]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11세기, 채색 삽화, 아르메니아 정교회, 예루살렘>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은 남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가로채는 것,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것,  
하느님께 인색한 부의 축척과 재산의 사용.  
인간의 불행이 이 모든 탐욕에서 시작된다면  
행복은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느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재산의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설 수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가는 길은  
한시도 설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험이 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니 좀 쉬자고 말할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실 것입니다.

-櫃-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아침 미사 (레지오)<br>저녁 미사         | 오전<br>오후       | 9:00<br>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에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에<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 꾸리아<br>3째주 -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br>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박요셉, 이마리아, 닥터 리, 송린현 바오로                                                                                                                  |
|             | (생)정해홍 요셉, 김민중 안드레아                                                                                                                          |
| 주 일<br>낮 미사 | (연)조지 가보라,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br>고준희 제임스, 김중환 야고보, 박문영 안젤라,<br>엄은섭 도로테오, 최복덕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br>강양근, 강용길, 강동석, 이성녀,<br>나향숙, 홍관 요셉                |
|             | (생)김세민 리디아, 정연태 띠또 & 루치아 가정,<br>이윤조 글라라, 이근모 마리노, 이종민 요셉,<br>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최성자 카타리나,<br>천광락 야고보 & 남숙 리디아, 박지상 아우구스틴,<br>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코헬렛 (Ecclesiastes) 1,2; 2,21-23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

제 2독서 콜로새서 (Colossians) 3,1-5.9-1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루카(Luke) 12,13-21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81        | 183   |
| 봉헌  | 264        | 264   |
| 성체  | 367        | 310   |
| 파견  | 199        | 245   |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 노년의 생명과 고통을 받을 때의 생명

인간은 병이 들었을 때에도 것처럼 신뢰하도록, 그리고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시편 103,3) 그분께 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사람의 눈에 건강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하여 "저의 세월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저는 풀처럼 메말라 가나이다."(시편 102,12) 하고 외칠 수밖에 없을 때조차도, 믿는 이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에서 힘을 얻는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낮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시편 30,3-4)

47). 많은 병자들의 치유를 통해 수행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인간 육체의 생명에까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보여준다. 성부께서는 "육체와 정신의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 사명 안에서 복음 선포와 병자들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진다.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환자는 깨끗이 낮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마태 10,7-8; 마르 6,13; 16,18 참조)

믿는 이들에게 이 지상 육체의 생명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특히 더 큰 선을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마르 8,35)이다. 신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이 당신의 생명을 성부께, 그리고 당신께 속한 사람에게 제물로 바치신다. 구세주에 앞서 온 세례자 요한의 죽음 역시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마르 6,17-29 참조) 주님의 부활을 충실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지상의 생명을 잃게 되는 스테파노는 스승의 말자취를 따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용서하는 말로써 맞이한다.(사도 7,59-60 참조) 그리하여 교회가 초기부터 존경해 온 수많은 순교자들 무리의 첫 번째가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사도 17,28) (◆계속)

## “허무로다, 허무?”

오늘의 첫째 독서는 코헬렛의 서두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하벨 하발림”이라는 코헬렛의 유명한 탄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해 본다면 “공허 중의 공허”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우리말 성경은 “허무로다, 허무!”라는 약간 의역된(하지만 매우 정확한) 표현으로 이를 옮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등장하는 하벨/헤벨이라는 명사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코헬렛의 저자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공허함에 대해 노래하면서 염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쫓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이루기도 하였으나 결국 깨닫는 것은 인간은 결코 영원한 행복에 스스로 이를 수 없다는 허무함에 대한 체험을 코헬렛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코헬렛만의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에 바탕을 둔 헬레니즘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의 문명과 함께 태동된 고대 종교로부터 현대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사상계는 같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종교인들과 철학자들만의 깨달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채규엽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가 그렇고, 80년대에 많이 불렸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 역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울먹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 사상이 던지는 의문의 깊은 기저에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으나, 우리가 깨달아 온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룬 어느 하나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한

숨 흠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허무로다, 허무!”라는 탄식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의 허무함 앞에서 코헬렛은 하느님을 만납니다. 코헬렛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코헬렛은 그 이유를 강조합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와 복음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덧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는 있겠으나, 그 “탐욕은 우상 숭배”이며, 그는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콜로새 서간 3장과 루카 복음12장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누군가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다면 그는 결국 헛된 것을 얻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이호미<br>엘리사벳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김교복<br>레오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김금자<br>테레사  | 박희자<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1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신덕례<br>테레사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이성연<br>크리스티나   | 박혜경<br>레나타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남 1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8월

- ◆ 병자 영성체 : 5일(목) 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P.V. 구역
- ◆ 성모 신심 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 성모 승천 대축일 : 15일(주일)

◆ 제대회 설립, 회원 모집

- 전례와 제단에 봉사할 제대회를 설립하며 회원을 모집합니다.
- 봉사할 내용 : 제대 정리 및 미사 준비, 꽃꽂이, 일반협조회원(많은 분들이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제대회장 오창애 안나 ☎(310)974-2857

◆ 전례 협조자 모집

- 대상 : 1. 독서자-미사 중 독서를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2. 해설자-미사 해설을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3. 성인 복사단-미사 때 복사를 설 수 있는 성인 남성 교우
- 연락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본당 수녀님

◆ 요셉회 친교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월15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잔
- 식사 : 여름 보양식 삼계탕
- 대상 : 65세 이상 누구나 환영
- 문의 : 요셉회장 권태만 실베스텔 ☎(310)989-9077  
총무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날짜 변경

- 일시 : 8월21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알론드라 팍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991-6966

◆ 2010년 제23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주제 :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사도 2,18)

- 일시 : 8월21(토) 오전 8시~오후 10시  
22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Marsee 오디터리엄  
(16007 크렌셔 불리바드, 토런스)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협의 회 회장), 허운석 세례자 요한 신부(한국 가톨릭 전례학회 사무 처장),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LA 성삼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25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본당 신부님배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 개최

- 일시 : 8월29일(주일) 오후 1시
- 축구대회 : 양업회, 대진회, 원서회, 청년회
- 족구대회 : 성모회, 자모회, 원서회자매, 청년자매
- 선수구성 : 축구 각 7명, 족구 각 6명
- 상품 : 1등 트로피 및 부상 증정
- 연락처 : 박상진 바오로 ☎(213)819-4242, 김철민 요한 ☎(310)740-1502,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 예비자 교리반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문의 : 복음화 분과 김충섭 마틴 위원장 ☎(213)820-7636

◆ 주일 아침미사 성가대(아도라테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를 통해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미사를 함께 드릴수 있는 관심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 김비비안나 ☎(310)542-0496

◆ 제66차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 신청

- 일시 : 9월3일(금)~5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 50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떡 \$4)
- 8월8일(주일) : P.V.1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교무금            | 강숙경 | 강인모 | 김상규          | 김영길  | 김우용  | 김일선  |
|                | 김찬구 | 문충한 | 김박광자         | 김박영식 | 김박종열 | 김박진수 |
|                | 서성용 | 송준규 | 신순철          | 오세원  | 이민상  | 이병우  |
|                | 이상철 | 이석진 | 이영석          | 이용무  | 이인석  | 임한나  |
|                | 정상문 | 정해홍 | 조준제          | 최상만  | 최수복  | 최원석  |
|                | 최희숙 | 황인중 | 합계 : \$3,250 |      |      |      |
| 미사헌금 : \$2,570 |     |     |              |      |      |      |

|                  |                 |     |     |     |     |     |
|------------------|-----------------|-----|-----|-----|-----|-----|
| 성전헌금             | 강숙경             | 김영길 | 김우용 | 김일선 | 김찬구 | 문충한 |
|                  | 박광자             | 박종열 | 서성용 | 신순철 | 오세원 | 이민상 |
|                  | 이병우             | 이상철 | 이영석 | 이용무 | 이인석 | 임한나 |
|                  | 정상문             | 정해홍 | 조준제 | 최상만 | 최원석 | 황인중 |
|                  | 합계 : \$1,597.89 |     |     |     |     |     |
|                  | 감사헌금 : 이귀분      |     |     |     |     |     |
| 라사이클링 : \$107.89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학기시작 : 9월12일(주일)
- 수업시간 : 주일 아침 9시30분 미사~낮 12시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 8월8일(주일)~9월12일(주일, 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쳐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첫영성체/신영세자/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견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남가주 소식

### ◆ 성모님 탄생축일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세미나

- 일시 : 8월4일(수)~5일(목) 오후 7시
- 주제 : 회개의 삶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S. Kingsley Dr.)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강의 : 이용혁 요한 신부
- 주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지도신부- 김두진 바오로 신부

### ◆ 이냐시오 영성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 ◆ 제 1회 남가주 가톨릭 한인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 28일(토) 오후 7시~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412 North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문의 : 백삼위 배론 청년회 밴드부장 김기석 바오로 ☎(323)206-2657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강당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모임의 날 | 오후 1시 |
|-------|-------|

##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                                  |     |                                                                         |                                            |
|----------------------------------|-----|-------------------------------------------------------------------------|--------------------------------------------|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     |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br>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br>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변해경 율리아나<br>920-5153                                                    | 변해경 율리아나 920-5153<br>8/6(금)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정기은 비오 530-7702<br>8/14(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00-5612                                                    |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br>8/19(목) 오후 8시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800-7798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강혜원 아네스 780-0369<br>8/13(금) 오후 7시          |
|                                  | 2   | 이크리스 아카토<br>619-7763                                                    | 홍광선 & 엘리사벳 543-4953<br>8/7(일) 오후 6시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정정현 베네딕다 720-2876<br>8/14(토) 오전 10시30분, 성당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오명섭 미카엘 326-1519<br>8/20(금) 오후 7시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박희자 마리아 972-9193<br>8/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안희경 크리스티나<br>750-4051                                                   | 이상철 크리스토퍼 750-4051<br>8/14(금) 오후 5시30분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2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김스텔라 213-272-8393<br>8/6(금) 오후 7시          |
|                                  | 3   | 대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해경 레나타<br>808-5005                                                     |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br>8/14(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미정                                                                      |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br>8/13(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김관기 라파엘 541-3087<br>8/28(토)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김택수 프란치스코 560-6615<br>8/13(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

## 주보로 배우는 교리

## “전 고해성사가 두렵습니다.”

☞ 얼마전에 생전 처음 피정이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신부님 강의도 좋았고 조용히 기도도 할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피정’이란 말이 매우 생소합니다. ‘피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요?

피정(retreat)이란 말은 피소정념(避靜靜念), 혹은 피세정수(避世靜修)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소란함, 혹은 세상을 피해서 조용히 묵상에 잠기거나 또는 자신을 닦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평상시의 생활에서 물러나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14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피정은 수도자나 은수자들에게만 해당되던 개념이었습니다. 차츰 평신도들에게도 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중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이 교회에 소개되면서 이 방법을 통하여 평신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하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16세기 초 성 빈첸시오 드 바오로가 당시 사회적 요청에 응하여 처음으로 평신도들의 단체피정을 지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평신도들의 피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되죠.

피정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떠나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신부님, 전 고해성사가 두렵습니다. 거짓으로 고해하게 되고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 보기를 힘들어 합니다. 사실 신부인 저도 매번 성사를 볼 때면 왠지 마음이 부담스럽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신앙의 용기 없이 또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해성사를 진실 되게 보고 나왔을 때 날아갈 듯한 마음, 그게 바로 구원이 아닐까요? 죄의 어두운 속성은 우리 자신을 묶어두려고 하지요. 하지만 선은 약하지만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밝은 곳으로 인도하지요. 용기를 내보세요.



이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고백성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에 안 나가는 사람에게 성당에 나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짓지 않으면 그때 나가겠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는 생각은 좋지

만, 그렇다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천진스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 생각은 죄의 세력 내지 악이라는 실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훨씬 큰 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삶을 봐도 악의 뿌리가 얼마나 심원하고 우리 삶을 일그러뜨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답게 죄스럽고 약한 자신을 인정할 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세례는 받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못 한 신자입니다. 저의 집에는 병으로 앓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신자들이 방문하셔서 기도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신자가 안수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제 집사람은 어떻게든 사례를 표시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봉사를 하려고 한 것이지 어떤 사례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은총을 거러처럼 생각하면 독성죄(모독죄)가 됩니다. 그분들의 봉사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다운 도리일 것입니다. 안수는 교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안수는 바로 하느님의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한 권리와 능력 및 자격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죄를 사할 때, 병자성사, 견진성사, 신품성사가 이루어질 때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안수가 이뤄져야 하며 일반 신자들이 무분별하게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케유를 베푸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